



그린 컨퍼런스 가이드라인

인터서브 생태행동 **INCA**

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사명입니다.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이 사명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.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은 전 과정에서 창조 세계를 지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.



컨퍼런스 전 기획부터 다시 생각하고 준비하기

- 컨퍼런스를 처음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창조 세계를 배려하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한다.
- 먼저, 꼭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한다.
-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면 컨퍼런스 전 과정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(간식, 비품, 서류, 음료)들에 있어 창조 세계에 덜 유해한 것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사한다.
- waste-zero를 목표로 한다. 분리수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, 아예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참석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미리 소통한다.
- 생각은 언어에 담긴다. 그린 컨퍼런스를 명명한다.
- 가능한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차량 공유를 요청한다.
- 메시지를 보낼 때, 온실가스 섭씨 0.5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적는다.
- 일회용품은 비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텀블러, 손수건 등 지참을 요청한다.

컨퍼런스 중

함께 만들어가는 그린 컨퍼런스



- 모임 중간에 그린 컨퍼런스 만들기에 협조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, 창조 세계에 대한 기도문을 낭독한다.
- Paperless! 유인물 대신 PPT와 파일 공유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유인물은 사탕 수수 용지 등을 활용한다.
- 잔반 고려해서 반찬 거절하거나 스스로 먹을 만큼만 가져가기 등에 대해서 식사 전에 공고한다.
- 물은 정수기 물로 미리 큰 병에 담아놓는다. 정수기도 가능하면 브리타로 준비하면 좋다.
- 음료수는 아예 사지 않거나 큰 통으로 준비한다. 커피와 티는 일회용을 준비하지 않고 주전자나 물통으로 준비한다.
- 텀블러 안 갖고 온 참석자를 위해서 컵 갖다 놓기. 단, 그 사람은 그 컵을 끝까지 쓰고 씻어서 반납한다.
- 간식은 큰 병이나 과자 박스 등에서 나눠 먹고 개별 포장은 준비하지 않는다.
- 과일은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(포도, 방울토마토 등)으로 준비해 각자의 컵에 담아 먹도록 한다.
- 복합재질 포장지에 담긴 과자나 음료는 사지 않는다.
- 일회용 식기나 컵, 냅킨도 준비하지 않는다. 불편하면 화장실로 가서 물로 씻도록 안내한다.
- 배달 음식, 도시락보다 수거해 가는 용기에 담긴 음식으로 준비한다.
- 기념품은 주지 않거나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소개하는 취지로 준비한다.
- 냉난방은 최소한으로 한다.



컨퍼런스 후 일상에서 실천으로

- 모임 후에 그린 컨퍼런스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.
- 이런 의사소통에 사용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공유한다.
- zero-waste 모임에 대한 소개 이미지 파일 - 예쁘게 만들어서 모임 때마다 사용한다.
- 모임 평가 때에 생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다시 의논하여 반영한다.
- 유인물이나 소통 채널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한다.